

교사도 '상구보리 하화중생'

불자로서의 교직윤리

나 는 교육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관을 경업(敬業), 낙업(樂業), 근업(勤業)이라고 본다. 이것을 교직윤리라고 하여도 좋고, 교육자의 자세라고 하여도 좋고, 스승의 길이 라고 하여도 좋다.

우리가 만일 교직을 멸업(蔑業), 고업(苦業), 태업(怠業)으로 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경업이라 함은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일이고, 낙업이라 함은 학생을 사랑하는 즐거움이고, 근업이라 함은 끊임 없는 연찬에 의하여 실력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교직윤리는 다른 어떤 직업에도 해당이 된다.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일(경업), 그 직업에서 일하는 자체가 즐거우며 일에 몰두할 수 있고(낙업), 일의 능률상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증진 시킬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함은(근업) 모든 직업의 공통적인 윤리관이다. 여기에서는 교직윤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독자들은 각자 자기의 직업에 비추어 보아 생각하고 해석하여 주기를 바란다.

1. 경업

경업은 교직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일이니 이것이 스승의 제1차적인 자질이다.

나는 얼마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실력과 우수한 교수방법을 지닌 K교사를 지극히 싫어하고 있다. 그 까닭은 그가 교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교원이 된 한탄을 학생들에게 늘어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교사는 입버릇처럼 "나는 계속해서 교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거야. 기회가 있으면 전직할 것이고 사표는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직을 싫어하면서 왜 교직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흔히 교원은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교원들 스스로가 교직을 멸업(蔑業)으로 생각할 때 과연 누가 교원을 존경할 것인지? 교사에게서 투철한 교육관이 엿보이며 어느 모로 보나 교사다운 때 사회에서는 그를 스승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정치가는 정치가다워야 하고, 은행가는 은행인드워야 하며,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정치가 같은 교사, 군인 같은 교사, 실업인 같은 교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스승' 같은 교사가 될 때 교사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될 것이다. 교원은 학생들의 동일시 대상(同一視對象)이 되므로 아동들은 교원의 행동 하나 하나를 모방하게 된다. 교원의 말투, 걸음걸이, 글씨뿐만 아니라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도 점차로 교원을 닮아가게 된다.

교원의 감화력에 대하여 그 예를 '학습동기의 유발'에서 들어보기를 하자. 학습동기 유발의 방법으로는 목표의 확인, 경쟁심의 고취, 칭찬, 참여의 장려, 결과의 확인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직업적인 방법이며 근본적인 방법은 '교사의 열정'이다. "열중하라, 열중은 무서운 힘으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3>



그림 · 이준석

- 敬業** 교직 종사 자부심 · 긍지갖자
- 樂業** 사랑으로 가르치면 즐겁다
- 勤業** 교육자의 자질 향상 끊임없이

로 전파한다"라는 신념이 내가 40년간의 교직생활에서 얻은 귀중한 신념이다.

몇 해 전에 정년이 지난 어떤 노교육자가 한 장의 사진을 보이면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 사진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하였고 일제시대에는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그 때 수학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중(약 20명) 현재 박사 학위 소지자가 5명이나 되는데 전원이 이 학박사, 공학박사들이며 인문사회 계통의 박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아동에게 미치는 교사의 감화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경업을 하려면 교직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바르게 생각하고(正念), 바르게 알아야(正知) 한다. 정념, 정지함으로써 교직자로서의 올바른 생활(正命)을 할 수 있다.

2. 낙업

낙업은 교직을 즐기는 것을 말하며 교직을 즐기려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교원의 가슴 속에 가득차 있어야 한다. 아침에 집을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무거운 발걸음이었으나 일단 학교에 와서 학

생들을 만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즐겁고 좋을 수 있을 때 교직은 낙업이 될 수 있다. 만일 아침에 명랑하고 기분 좋게 집을 나왔지만 학생들을 보면 시달릴 생각이 앞서며 이마가 저절로 찌푸러진다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 이러한 고업(苦業)을 어떻게 일생동안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예로부터 위대한 스승은 한결같이 제자를 사랑한 교육자이며 또한 어른이 된 후에도 기억에 남는 스승은 제자를 사랑했던 분이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작용과 감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니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교직은 즐거운 직업이 된다.

논어(論語)에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之'를 '教育'으로 바꾸면, "교육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육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며 교육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육하는 것을 즐기려는 사람만 못하다"로 될 것이다. 모험지기 '스승'이라 함은 교육하는 것을 즐기는 교육자를 말함이니 교육하는 것을 즐기려면 그 밑바탕에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교육자에게 필요한 자질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소중한 자질은 바로 학생에 대한 사랑이다. 교직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간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람은 교육자가 될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마음속에 평생동안 간직하고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 교사는 지식을 잘 전달한 교사보다 학생을 지극히 사랑했던 스승이었음을 교육자 스스로가 확인하고 '학생 사랑'의 스승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사법법(四攝法)을 실천하는 교사이다. 사법법은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이다. 보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법보시이며 불자는 학생을 가르칠 때 부처님의 법이 언연 중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편애하지 않으며 모든 학생을 사랑의 말로 이끌고 학생들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며 사제 동행의 길을 걸음이 바로 학생을 사랑하는 교직윤리이다.

3. 근업

근업이라 함은 끊임 없는 연찬에 의하여 자기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교직을 흔히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한다. 교직에 과해진 핵심 과제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일이다. 가끔 지식과 기술의 전달을 비판하는 말이 들리는데 만일 교직에서 지식 기술의 전달 기능을 제외하면 교직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지 의문이다.

원들의 학교에서의 하루 생활을 교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

교육자의 사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사명은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느냐에 있으며 교직의 이와 같은 사명은 학교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으며 또한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즉 교원은 지식과 기술의 전달자이므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은 평생교육의 실천자가 되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교원이 게으름을 피우려면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다. 경험과 요령으로 10년간 똑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하여도 그것 때문에 좌절되고 파면되는 일은 없다. 다른 직종에서는 그 직업에 대한 게으름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게 즉각 나타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얼마 안 가서 그 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교직의 경우 지식 산업인데도 지식 흡수에 대한 태만으로 인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칫하면 교직은 태업(怠業)이 되기 쉽다. 교원이 "독서하지 않는다", "연구하지 않는다", "실력이 없다"라는 평을 사회나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다른 모든 면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스승'으로 존경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는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정신(精進)의 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지식에 내재해 있는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불자로서의 교직윤리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흔히 '결망을 걸머지고 간다'는 말을 한다.

'결망'이란 스님들이 발우·목탁·경전·때로는 시주받은 공양물 등을 담아 등에 메고 다니는 일종의 배낭이다. 결망이라는 단어가 '결'자로 시작했고 대개 스님들이 탁발할 때 쓰는 것을 본 사람들이 결망을 걸식할 때 쓰는 말태기로 착각하는 예가 많다. 이는 철저한 착각이고 오해다.

결망은 일종의 대형 주머니라고 보면 된다. 무명천에 먹물을 들여 결망을 만들어 메고 이 절에서 저 절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구물처럼 다니는 스님들의 모습은 활기찬 생활의 표본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의 귀에 익은 말에 '과나리못집'이 있

결망

운수남자들의 만행 '못집' 무소유의 활기찬 생활상징

다. 간단한 못집을 통틀어 '단못집'이라고 한다. 과나리 못집이든 결망이든 번거로운 이동장비를 피하고 언제나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상태를 유지할 때 쓰는 장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결망 하나에 생계를 의탁하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스님들의 행각을 불교 전문용어로 '만행'이라고 한다. 만행은 탁발과 함께 스님들의 수행의 중요한 과정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국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참다운 스님이 되어보자는 의도로 공통점을 한다.

일요일이 되면 도시 근교의 산에는 온통 서양식 결망이 원색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결망을 메고 갈대가 하얗게 핀 산모퉁이를 지나가는 스님을 찾기가 힘들다. 한 번쯤은 결망에 발우를 담아 메고 활기찬게 먼 여행을 떠나는 여유와 한가로움을 비록 상상으로나마 즐겨 볼 만도 하다. 결망을 메고 다니며 경험한 자료를 분석하여 오늘 이 시대의 중생이 진실로 겪고 있는 아픔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 안길모춤 '이판사판 야단법석'

도서를 제외한 영화, 영상, 음반, 공연 예매 등 다방면의 문화 예매를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권 판매 실시!

백만 여시어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37-0066, 732-1521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수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님'에 출연하길 잘 했어요."

인제라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누는 프로 '우리절 우리님'에 나가 풀어보십시오. 기술통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집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